

한·중 처소표현(locative expressions)에서 관찰되는
어휘상(lexical aspect) 자질의 역할과 작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처소격 표지와 중국어 처소구의 통사적 분포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the role and influence of lexical aspect
observed from Korean·Chinese locative expressions

이승희(가천대)

1. 서론

이 연구는 처소표현의 두 범주인 위치성(locative)과 방향성(directional)의 기능과 구조에서 한국어 처소격 표지(local cases maker)와 중국어 처소구의 통사적 분포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어휘상(lexical aspect)을 포착하고 이 자질이 장소표현에 미치는 역할과 작용을 대조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휘상 자질로 분석한 처소표현은 한국어에서 ‘위치성’과 ‘방향성’의 두 범주에서 이질적으로 다루어지던 논의를 공통된 기제로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다.¹⁾ 중국어에서 동사 앞과 뒤의 통사적 분포에 의한 의미와 기능 차이를 밝힐 수 있다. 이 연구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처소표현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격조사가 없는 언어에서 무엇이 한국어 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한·중 처소표현에서 등가의 표현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에 주목한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2. 한·중 처소표현의 의미와 기능 차이, 3. 한국어 처소격 표지와 중국어 처소구 분포 분석, 4. 내부·접경·방향을 어휘상 자질로 재분석한다.²⁾ 이러한 분석은 학습자가 목표어의 범주와 규칙을 사용해도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와, 비슷해 보이는 두 동사지만 서로 다른 규칙으로 쓰이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한·중 처소표현의 의미와 기능차이

한국어 처소표현은 ‘[NP-에서/에/로]’의 처소 명사구가 동사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1) a. 부가어(adjuncts)
- b. 보충어(complements)

(1a)는 [NP-에서/에]가 특정 서술어와 관련이 없는 부가어로 쓰여 [NP-에서]는 ‘장소 내부’, [NP-에]는 ‘장소 접경’에 관한 논의이다. (1b)는 [NP-에서/에/로]가 특정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어로 쓰여 [NP-에서]는 ‘기점’, [NP-에]는 ‘착점’, [NP-(으)로]는 ‘방향’에 관한 논의이다. 예를 들면 [NP-에]가 ‘위치성’은 ‘장소 접경’으로, ‘방향성’은 ‘착점’으로, [NP-에서]가 ‘위치성’은 ‘장소 내부’로, ‘방향성’

1) ‘처소구문’과 관련해서는 ‘가-’와 ‘오-’등 일부 ‘이동동사’의 예를 들어 격조사의 다의미성을 논의한다. 본 발표에서는 일관된 어휘상 분류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상태동사(States)’, ‘행위동사(Activity)’, ‘순간동사(Semelfactive)’, ‘달성동사(Achievement)’, ‘완수동사(Accomplishment)’로 동사를 분류한다. 동사가 본래 지니고 있는 어휘상 자질로의 의미는 [상태성(stative)],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으로 표기한다. ‘동태성’은 본래 지닌 상 자질이 아닌 외부에서 부여된 의미로 사용하며, 본고에서 ‘종결’은 어휘상 자질로서 [telic]을 의미하며, ‘종결성’은 [telic]이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오충연 2006:72).

2) 임동훈(2017) 참조

은 ‘기점’을 의미한다. 아래 문장으로 확인해 보자.

- (2) a. 아기가 침대-에서/에 누웠다. (행위자가 행위발생 장소에 있음/장소에 없음)
- b. 아기가 침대-에서/*에 놀았다. (동작발생)
- c. 아기가 침대-에서/에 떨어졌다. (기점/종점)
- d. 아기가 침대-로 떨어졌다. (방향)
- e. 아이가 침대-에서/에 (색종이-로) 꽃을 만들었다. (동작발생/동작완성)

(2a)는 [NP-에서]와 [NP-에]가 모두 허용되지만 (2b)는 [NP-에]가 허용되지 않는다. (2c)의 [NP-에서]와 [NP-에]는 그 의미가 (2a)와 다르다. (2d)는 방향을 나타내며 (2e)의 ‘-로’와 그 의미가 다르다. 또한 (2e)의 [NP-에서]와 [NP-에]는 (2c)와도 다르다.

중국어의 처소표현은 개사인 ‘在’, ‘到’, 등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전치사(preposition)의 형태로 문장에서 아래의 두 가지 통사적 분포로 나타난다.

- (3) a. [在/到-NP] + 동사
- b. 동사 + [在/到-NP]

(3a)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3b)는 보어로 쓰인다. (3a)의 어순은 한국어와 같지만, (3b)는 한국어에 없는 어순이므로 이를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현대 한국어는 시제 언어이고(박진호 2015:14), 중국어는 시제 표시가 없다(박정구 외 1999:191). 따라서 중국어는 상이 발달하여 지속상의 ‘着’, 진행상의 ‘在’, 완결상의 ‘了₁’, 완료의 ‘了₂’는 중국인에게 직관적으로 사용된다.

- (4) a. 妈妈 在看着 儿子的脸。
- b. 妈妈 在看 儿子的脸。
- c. 妈妈 在厨房里 看儿子的脸。
- d. 爸爸 在看(着) 电影。

(4a)는 동사 ‘看’를 중심으로 ‘在’와 ‘着’이 함께 쓰여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낸다.³⁾ (4b)에서 단독으로 쓰인 ‘在’는 ‘看’의 [비종결성]이 ‘비사건’으로 이해되어 행위자의 ‘적극적 진행’을 나타내지 못하고 제 3자가 ‘어떤 엄마(妈妈)가 아이의 얼굴(儿子的脸)을 보는(看) 장면’을 설명하는 맥락처럼 느껴진다. (4c)는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와 동작을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의 결합체로 ‘~에서 ~하고 있다’의 의미이다(이은수 2010:9). 이 역시 (4b)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적극적 진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반면에 (4d)는 (4b)와 달리 동사 ‘看’ 앞에 ‘在’만 쓰여도 행위자의 적극적 진행이 느껴지며 ‘着’이 부가되면 더욱 자연스럽다.

- (5) a. 他把那本书放在桌子上。
- b. 爸爸把房子盖在乡下。

(5)은 ‘把’자구와 처소구가 함께 쓰인 문장이다. (5a) ‘把’자구와 동사 ‘放’이 ‘동 + [在/到-NP]’ 분포로 사용되어 ‘이동+결과’가 포착된다. 그러나 (5b) 이동의 의미가 포착되지 않고 결과의 의미만 있다. 동일한 ‘把자구’이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은 어휘상을 구분하는 자질

3) 강병규(2011) 참조

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3. 한국어 '처소격 표지'와 중국어 '처소구 분포' 분석

2.1 처소격 표지와 [개사-NP]+V 와 V+ [개사-NP]는 어떤 상관성이 있나?

한국어 장소표현 '[NP-에서/에/로]'의 어순은 중국어의 처소표현 어순인 '[개사-NP]+V 와 V+ [개사-NP]'의 두 가지의 어순 중 전자에 해당한다. 이 어순은 중국어 '상어(狀語, adverbial)'에 해당하므로 중국인은 한국어 '보충어(complements)'로 쓰이는 처소격 조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인은 한국어에 없는 어순인 'V+ [개사-NP]'의 어순을 적절한 처소격 표지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어렵다.

- (6) a. 그들은 밖으로 갔다. (표준중국어문법 1999:391)
b. 他们 到 外边 去了。 (Mandarin Chinese 1989:413)
b'. 他们 去 到 外边。

(6a)를 중국어로 표현하면 (6b)와 (6b')의 두개의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두 구문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6a)는 '가-'라는 동사 앞에 [밖-으로]라는 명사구가 보충어로 쓰여 '방향성'을 나타낼 뿐 목적지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6b)는 동사 '去'앞에 '[개사-NP]去'의 어순으로 쓰여 '去' 동작의 시작을 나타낸 것이므로 '갔다'가 아닌 '-에 가는 중이다'가 더 적합하다. 또한 '가는 중'인 동작이므로 목적지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6b')는 '去[개사-NP]'의 어순으로 동작이 끝난 결과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갔다(去过了)+결과(在外边)'의 의미이다.

2.2 표면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다른 의미를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어의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더라도 중국인이 발화한 의미는 한국어 화자가 생각한 그 의미가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어법에 맞게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로 발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는 중국인 화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거나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7) a. 他 在 地上 跪下。
a'. 他 跪 在 地上。
b.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중국어 (7a)와 (7a')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는 한국어로는 (7b)의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중국어 문장에서 (7a)는 'is crouching'으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진행'의 동작이고, (7a')는 'crouched'으로 진행이 아니다.⁴⁾ 중국인은 처소구의 분포에 따라 이러한 상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느끼지만 한국인은 이것이 중의적으로 표현된다.

4) CHARLES N.LI & SANDRA A.THOMPSON(1981:402) 참조

2.3 중국어에 있고 한국어에 없는 문법양식을 한국어 처소격 조사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아래 문장에 쓰인 처소격 조사 [NP-에]가 (a)와 (b)는 ‘착점’으로 (c)는 ‘경계도달’로 (d)는 ‘기점’과 ‘방향’으로 다양하게 쓰였다(임동훈 2017:106). 이러한 의미 차이는 중국어로 동사 앞의 구조나 동사 뒤의 구조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한다.

(8) a. 나는 책꽂이에 잡지를 놓았다

a`. 我在书架上放杂志。

(표준중국어문법:383)

b. 나는 잡지를 책꽂이에 놓았다.

b`. 我把杂志放在书架上。

일반적으로 중국어 문법서에서 (8a`)와 (8b`)의 의미는 같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두 문장의 의미는 같지 않다. (8a`)의 ‘[개사-NP]+V’는 ‘[在-장소]에서 발생한 동작으로 [순간성]인 ‘放’의 동작이 완성된 ‘착점’이므로 동작의 움직임이 포착될 수 없다. 반면에 (8b`)는 ‘把’로 인해 목적어인 ‘잡지’의 위치가 이동되어 변화되었음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9) a. 下楼/回家

b.(위층·계단 따위에서) 내려가다/동사 집으로 돌아가다

(9a)의 ‘下楼’는 ‘손님은 건물에서 내려갔다’로 ‘기점’으로 오류해석이 많다. 이는 ‘손님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로 ‘착점’의 의미이다. 해석대로 ‘기점’으로 쓰려면 ‘从楼下去’로 써야 한다. 또한 ‘回家’도 일반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다’로 ‘방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는 ‘집에 가다’로 ‘집이 착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표현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다’는 ‘집으로 가는’ 방향만 제시하므로 ‘往家去’로 사용해야 한다.

4. 내부, 접경, 방향을 어휘상 자질로 설명

3.1 한국어 처소격 표지의 다의성과 어휘상 자질

한국어에서 처소격 표지의 다의미성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이 A와 B의 두 범주로 나누어 기술되었다.

[표1] 처소격 표지의 다의미성에 대한 논의 범주

	(A) 범주	(B)범주
a	보충어	부가어
b	이동동사	일반동사
c	-에와 호응하는 동사류	-로와 호응하는 동사류

위와 같이 두 범주로 나누어 기술되는 논의들은 (1a)에서는 ‘보충어’와 ‘부가어’의 구별 기

준에 이견이 많아 실제 한국어 교육환경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1b)는 ‘이동동사’가 아닌 동사들은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고, (1c)는 특정 처소격 조사와 호응하는 동사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동사류 중 ‘-에’와 ‘-로’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의 목록이 너무 많아 분류로서의 의미가 모호해진다⁵⁾. 그러나 동사가 지닌 어휘상 자질로 두 분야로 나누어 논의되는 ‘장소내부’의 ‘-에서’, ‘장소경계’의 ‘-에’, ‘방향’의 ‘-(으)로’의 기능과 의미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표2] 한국어 장소표현과 어휘상 자질 분석 결과

어휘상 / 처소격 표지		장소 내부	장소 경계	방향
		-에서	-에	-로
a	[지속성], [-종결성] ex. 뛰다, 보다, 앉다, 눕다	동작의 발생 동작 발생 후 지속		
b	[지속성],[종결성] ex. 집을 짓다, 드라마를 보다	동작의 발생	동작의 완성	도구
c	[-지속성],[종결성] 가다, 놓다, 뿌리다	기점	착점	방향

- A유형 ‘행위동사’는 [지속성]으로 ‘-에서’ 동작의 발생을 나타낼 수 있으나 [비종결성]으로 인해 경계와 상충한다.

- B유형 ‘완성동사’는 [지속성]과 [종결성]으로 동작의 지속되는 시간은 [종결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동작이 완성된 지점은 경계에 도달한 지점이다. 경계 도달 전에는 대상이 없다가 경계 도달 후 대상이 존재하는 극성변화(polaric change)이다.⁶⁾

- C유형 ‘달성동사’는 [-지속성]과 [종결성]이다. 이는 동작이 완성되는 순간은 [순간적]이나 그 완성까지 도달하기 위한 예비단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예비단계를 거쳐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의 특성(시작점=끝점)으로 인해 ‘-에서’는 내부에서 발생된 ‘기점’이고, ‘-에’는 경계에 도달한 ‘착점’이다.⁷⁾ ‘-로’는 그 점의 진로 ‘방향’만을 의미하므로 목적지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3. 2 중국어 처소구의 통사적 분포와 어휘상 자질

- 장소구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在/到-N] V’은 동사가 발생되기 전의 장소이며, 장소구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V [在/到-N]’의 어순은 동사가 발생한 후 목적어나 주어가 이동되었거나 결과를 겪은 후의 장소이다.⁸⁾ 이 두 어순은 동사에 따라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了’의 의미, ‘把자문’, ‘동사중첩’등에서 문법적 적격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3] 중국어 장소표현과 어휘상 자질 분석 결과

5) 채희락·임희숙(2013)참조

6) 남승호(2004)참조

7) 상황이 종료(finish)되는 최종점은 임의적 최종점과 자연적 최종점을 구별하여 ‘F_{Arb}’와 ‘F_{Nat}’를 구별하여 사용한다(Comrie 1967:44).

8) 박정구 외(2019)참조

어휘상 / 처소구 분포		‘[在-N] V’	V [在/到-N]	[向/到-N] V
		장소 내부	장소 경계	방향
a	[지속성], [-종결성] 예. 跑, 看, 去	동작의 발생	-	-
b	[지속성], [종결성] 예. 盖房子, 看星期天戏	동작의 발생	동작의 완성	도구
c	[-지속성], [종결성] 放, 洒	기점	착점	방향
d	[상태성] 坐, 躺	동작 발생을 위한 동태적 요소 부가	동작 + 동작 후 결과지속	

- a유형 행위동사는 ‘[在-N] V’분포에서 동작의 발생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행위동사가 ‘了₁’과 함께 쓰이면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동상’으로 쓰인다. 이는 [비종결성]으로 인한 자연스런 결합관계를 보여준다. [비종결성]으로 인해 V [在/到-N]구조에서는 비문이 된다.

- b유형의 완성동사는 ‘[在-N] V’분포로 쓰이면 동작의 발생을 나타낸다. ‘V [在/到-N]’의 분포로 쓰이면 동작이 ‘완성’된 장소로, ‘在’는 동작의 ‘완성 후 결과가’ 남아있는 상태를, ‘到’는 동작의 ‘이동 후 결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 c유형의 달성동사는 ‘[在-N] V’분포에서는 내부에서 발생 ‘기점’이고 V [在-N]는 경계에 도달한 ‘착점’이 된다. ‘[在-N] V’분포에서 ‘在’ 대신 ‘向’이나 ‘到’가 쓰이면 동작의 ‘완성점(시작점=끝점)’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진로 방향만을 의미하므로 목적지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 d 유형의 상태성 동사는 중국어의 ‘앉다(坐), 눕다(躺)’에 해당한다. 이들 동사가 한국어는 동작성을 가진 ‘행위동사’이나 중국어는 ‘상태동사’이다.⁹⁾ 따라서 상태동사인 ‘자세류’ 동사에 행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방향보어, 결과보어, 방향성의 전치사’등을 부가해야 한다(이승희 2018:438).

4. 결론

첫째, 한국어 처소표현은 위치성과 방향성의 두 범주에서 처소격 표지에 따라 다의미성을 지니나 동사의 상적 자질로 분석하면 ‘-에서, -에, -로’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중국어 처소표현은 장소구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 이 두 어순은 어떤 차이는 동작의 완성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동사의 상적 자질로 인해 ‘把’자문, 진행과 진행에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달성동사’에 해당하는 한국어 C유형과 중국어 c유형과 ‘시작점=완성점’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인가 목적어인가에 따라 다른 위치로 나타난다. 중국어 c유형은 한국어에서 행위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동사가 쓰인 처소표현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넷째, 상태동사에 있어 중국어의 상태성은 한국어의 상태성과 다르게 이해된다. 한국어에서는 [-상태성]은 [동태성]을 의미하지만 중국어의 상태성은 타동성의 정도성과 유사한 정도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태성]이 [-상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 상태동사 d유형은 한국

9) 박진호(2015:15-19)의 의미지도 참조

어의 행위동사 A유형에 해당한다.

참고목록

강병규(2011), 「현대중국어 미완료상 표지 ‘在’와 ‘着’의 동사 결합 관계 양상 고찰」, 중어중문학 48, 341-374.

남승호(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75-124.

박정구 외(1999), 『표준 중국어 문법』, 한울아카데미.

박정구(2016), 「중국어 상 체계의 언어유형적 특성 고찰 -완정상으로의 문법화 경로에 놓인 변이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77, 87-111.

박정구(2019),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방언의 결과상/진행상 표지의 변이 유형과 발전 기제-동사에 후행하는 ‘着’류와 ‘在’류 형식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75, 87-114.

박진호(2015), 「언어유형론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제시하는 것들, 일어일문학연구 94, 1-27.

오충연(2006),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이승희(2017), 「비완결상의 하위 범주로서의 상에 관한 고찰」, 인문연구 81호.

이승희(2018a), 「자세동사의 상적 특성에 관한 한·중대조분석」, 『우리어문연구』 60, 433-464.

이승희(2018b), 「한·중 시간 관련 범주에 관한 소고」, 『언어연구』33-4, 715-732.

이승희(2018c), 「한·중 어휘상 유형에 관한 고찰-Vendler(1967)와 Smith(1997)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 논총 37-2, 55-84.

이승희(2019), 「어휘상의 관점으로 접근한 비방향성 장소구문의 한·중 대조-행위동사와 완수동사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50, 307-327.

이은수(2009), 「현대중국어의 상황상 연구」, 『중국학논총』 26, 1-23.

임동훈(2017),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국어학 82, 101-125.

채희락·임희숙(2013), 「장소표현 [NP-에]와 [NP-에서]의 분석: 보충어와 부가어 구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언어 38, 997-1026.

Chao fen sun(2006), *Chinese: A Linguistic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박정구 외 역([1989], 2013), 『표준중국어 문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載耀晶(1997), 『漢語時體系統研究』, 中國 浙江教育出版社.

呂叔湘(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北京: 商務印書館.

陳前端(2008), 『漢語體貌研究的類型學視野』, 北京: 商務印書館.

